

# COVID-19 사태로 인한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 변화 탐색

강영숙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김병철 (안산대학교 에이블대학과정 팀장)\*\*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사태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경험 탐색을 목적으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데이터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로 인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COVID-19이후 장애인의 고용안정 정도가 나빠졌다.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COVID-19로 인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COVID-19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를 볼 때,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결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국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COVID-19, 장애인근로자, 경제활동, 일자리

## I. 서론

2020년 12월말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인 수는 현재 2,619천여 명으로 2019년 12월 말 958천여 명에서 약 173% 급증하였다. 한편, 급증하는 등록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자립 중심에서 재활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 및 권익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과 사회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장애인 자립의 기본은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 제 32조에서는 근로를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김동주·고민석, 2012; 이성순, 2011). 직업은 자아실현, 생계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자, 삶의 보람, 행복감과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남정휘·조성욱, 2012).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발달장애인법 제25조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장애인이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생계 수단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기회를 제공한다(김금환 외, 2012;

정원철·박윤정, 2012).

유은주(2014)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노동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염려, 편의시설 추가 제공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의무고용제도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도가 없다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유은주, 2014).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전된다(OECD, 2010).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ICF를 토대로 개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WHO, 2009).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94.4%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성희 외, 2017).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에 의하면 2019년 전체 고용률은 6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은 생산의 주체가 아닌 보

\* 주저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sarang6774@hanmail.net

\*\* 교신저자, 안산대학교 에이블대학과정 팀장, best744@ansan.ac.kr

· 투고일: 2021-08-23 · 1차 수정일: 2021-10-08 · 2차 수정일: 2021-10-20

· 게재확정일: 2021-10-23

호와, 면세의 객체로 보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며(최성욱 외, 2007), 장애인의 취업을 강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인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과 ‘고용부담금’이 낮고 그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작아서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박태경, 2010).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 실업상태 지속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장애인은 구직을 위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18.9%,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려서가 17%,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2.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 COVID-19에 막혀 수개월째 담보 상태다.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은 COVID-19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고용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반면, 실업지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애인 직업시설이 출파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서인환, 2020). 장애인 직업문제는 COVID-19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현상이다. 장애인 직업시설은 COVID-19로 인한 휴업으로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거래처의 업무가 감소하거나, 또는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감소되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전 종사자가 투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COVID-19 이후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장애인의 직업시설에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들 역시 경제적 부담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지만 COVID-19 사태를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겪게 되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 요인은 장애인 직업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술, 인구, 가치관, 자연환경 그리고 최근 보이고 있는 COVID-19와 같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사회적 충격과 변동 폭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직업시설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삶의 질과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는 단순하게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제적 활동이 멈춰버린 것이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적 약자나 직장인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해결책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통해 시도하고 있지만 장애인 직업시설은 그 내용을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동시장은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이나 임금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 임예적·문영민(2020)은 본 연구와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사회보험, 고용, 임금 불안정 중 하나 이상을 경

험한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61.2%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자 비율인 32.3%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높게 나타났다(이승운 외, 2017a). 그러나 노동하며 생산하고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의 존재는 매뉴얼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은 COVID-19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첫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근로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셋째, COVID-19로 인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넷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의 퇴직이나 구직에 대한 변화는 어떠한지 파악한다. 다섯째,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COVID-19와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이는 사회적 경제로 대별되는 함께 어울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지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 경제위기, 국가의 제도화 등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Defoumy & Kim, 201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착한 일자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공동체성이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Defoumy, 2008; Lamberte & Manlagñit, 2009; 이인재 외, 2013).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계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양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심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21년 9월 현재까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3,064개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른 연대, 협력, 투명한 소통, 유대, 배려와 지지, 통합 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 전국 365개소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조직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COVID-19로 전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응답자 중

54%가 COVID-19로 힘든 상황이나 고용조정보다는 고통 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급여의 축소를 의미한다. COVID-19 같은 돌발적인 재난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은 구호로만 그치고 재난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연결하는 연결망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난극복의 사회적 자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정미정, 2020).

## 2.2. COVID-19와 장애인 노동시장

장애인 노동시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나중에 채용되기 때문에(서정희 외, 2020).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예직·문영민, 2020).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 임금, 사회보험 불안정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61.2%라고 보고하였으며(임예직·문영민, 2020), 이는 일반 노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인 32.3%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승윤, 2017b). COVID-19의 위기로 장애인도 대형 악재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은 국가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WHO가 COVID-19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라고 공포한 2020년 3월 이후 고용률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4월에는 16.1%까지 떨어졌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COVID-19 pandemic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노동부 직업편의 네트워크(Job Accommodation Network)는 COVID-19의 유행 시 ADA와 기타 차별금지법 범주 내에서 고용주가 장애인의 편의를 지원하는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에는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하고 있어 COVID-19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을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미지, 2020).

Cortis & van Toorn(2020)에 의하면 호주에서 COVID-19로 위기 장애인 노동자들이 개인보호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직장내 추가 업무와 인력문제의 욕구에 대응을 못하여 일자리를 잃는 등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은 장애인을 특별 해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중에서도 실업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에 2020년 3월기준 실업자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 수는 157,523명에서 8월에는 177,72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3.6% 증가한 수치이나, 동일 기간 비장애인의 실업자 수 증가 비율 27.4%로 증가한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남현주, 2020). COVID-19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혹은 휴직을 종용받는 장애인 근로자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이투데이 오피니언 팀, 2021).

황선웅(2020)은 COVID-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영향을 소득 감소, 일자리 상실, 무급휴업 강요 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바, 노동자의 47.5%가 소득 감소를 경험, 5.5%가

일자리 상실을, 12.6%가 무급휴업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정규직 소득감소 확률은 35.0%였지만, 비정규직은 66.3%로 2배 이상 높았다. 국내에서는 2021년 1월이 되어야 2020년 5월 시점에서 장애인 경제활동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의 실업 증가율은 2019년 2.3%에서 2020년 3.5%로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실업 증가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5.1%로 전체 인구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이는 독일의 특별 해고 보호 대상 프로그램처럼 국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장애인 고용보호 조치가 실업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3.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노동시장 불안정성 요인

국내외에서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불안정 노동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COVID-19로 인한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 무급 또는 유급 휴직 등의 근로 형태의 변화나 소득 수준 감소 등의 직장 내 변화이다. 황선웅(2020)은 COVID-19로 대상자의 5.5%가 일자리 상실, 12.6%가 무급휴업 강요, 47.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20). 여성은 남성보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공서비스업이나 돌봄노동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김유빈 외, 2019) COVID-19로 인한 감염의 위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요인은 일반적 상황에서 장애인의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업종의 경우 공공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건설운수업, 도소매업에서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보험 배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서정희·이지수, 2017; 이정서·김현덕, 2013), 공익산업과 2차 산업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임예직·문영민, 2020).

## III.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분석자료

장애인이 COVID-19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정한 직업 유지 상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주관으로 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기획, 조사표와 지침 개발, TAPI 프로그램 논리구성 및 실사관리, 데이터 검증,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결과 공표를 담당하였으며 ㈜한국리서치에서 TAPI 프로그램 개발, 조사원 관리 및 실사 진행을 담당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기간은 2020. 5. 10(일)~5. 16(토)까지로 7일간이다.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8주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실시하였다. 표집틀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명부 사용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표본설계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 추출 읍면동 수를 조절하였고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별로 적정 표본을 추출할 목적으로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방법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가중치 적용 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경증’은 858명,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는 6명이 결정보류가 있고, 결정 보류된 864명은 모든 분석에서 제외하였기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자료에서 COVID-19로 인해 일어나는 일반 경제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하였고, 이어 장애인의 근로현황, 고용안정,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자료를 발췌하여 COVID-19로 인한 장애인노동자의 실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료인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다뤘다. 이로써 장애인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모습 즉, 취업이나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횡단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 IV. 분석결과

### 4.1.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 4.1.1.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562,873명이다. 이 중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949,047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893,392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37.0%, 고용률은 34.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0.3%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동일하다. 실업자는 55,654명으로 실업률은 5.9%이며, 전년대비 0.4% 하락하였다. 2020년도 전체인구

를 대상으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63.0%, 고용률은 60.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1.0% 하락하였고, 고용률도 1.3%하락하였다. 실업률은 4.5%이며, 전년대비 0.5% 하락하였다. 전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26.0%, 고용률은 25.3% 만큼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률은 1.4% 더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근로환경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추정

(단위: 명, %, %)

구분	연도	대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황률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계				
장애인구	2019	2,526,201	881,890	59,247	941,136	1,585,065	37.3	6.3	34.9
	2020	2,562,873	893,392	55,654	949,047	1,613,826	37.0	5.9	34.9
	증감	36,672	11,502	-3,593	7,911	28,761	-0.3	-0.4	0.0
전체인구	2019	44,460,000	27,322,000	1,145,000	44,460,000	15,992,000	64.0	4.0	61.5
	2020	44,756,000	26,930,000	1,278,000	44,756,000	16,548,000	63.0	4.5	60.2
	증감	296,000	-392,000	133,000	-259,000	556,000	-1.0	0.5	-1.3

주 1) 경황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증감은 '19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1.2. 15개 장애 유형별 고용율

안면장애는 61.4%, 간장애는 48.6%, 지체장애는 44.4%, 시각장애는 4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9.9%, 뇌전증장애는 11.2%, 뇌병변장애는 12.7%, 호흡기장애는 16.1%, 자폐성장애는 21.3%으로 나타나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표 2> 15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율

(15세 이상)

(단위: 명, %)

장애 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고용율	상대표준 오차 (CV)
지체장애	1,221,284	541,919	651,627	44.4	2.9
뇌병변장애	243,724	30,882	208,632	12.7	8.5
시각장애	251,565	106,307	139,245	42.3	4.0
청각장애	374,008	114,262	251,893	30.6	4.8
언어장애	17,861	4,217	13,230	23.6	10.9
지적장애	187,963	43,843	140,295	23.3	7.0
자폐성장애	16,961	3,612	12,919	21.3	9.3
정신장애	102,978	10,159	90,154	9.9	14.1
신장장애	92,298	22,213	68,621	24.1	6.2
심장장애	5,082	1,399	3,637	27.5	14.4
호흡기장애	11,487	1,852	9,556	16.1	13.6

간장애	12,847	6,242	6,244	48.6	7.5
인면장애	2,655	1,631	1,001	61.4	8.7
장루·요루장애	15,239	4,083	10,882	26.8	9.7
뇌전증장애	6,921	772	5,888	11.2	21.4
전체	2,562,873	893,392	1,613,826	34.9	2.1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1.3.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 변화(15세 이상)

2020년 장애인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는 2019년 대비 1.1% 감소하였는데 자영업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18,167명이 증가하여 7.1% 증가폭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시근로자가 6.0%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14.5%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의 경우 임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주가 크게 감소하였다.

<표 3>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 변화(15세 이상)

(단위: 명)

구분	연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합계
		상용	임시	일용	계	자영업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계	
장애인 인구	2019	351,926	183,884	91,896	627,706	52,296	175,859	26,028	254,184	881,890
	2020	352,957	194,892	73,193	621,042	57,592	184,965	29,793	272,351	893,39
	증감(명)	1,031	11,008	-18,703	-6,664	5,296	9,106	3,765	18,167	11,502
	증감률 (%)	0.3	6.0	-20.4	-1.1	5.296	5.2	14.5	7.1	1.3
전체 인구	2019	14,070,000	4,954,000	1,480,000	20,504,000	1,584,000	4,099,000	1,135,000	6,818,000	27,322,000
	2020	14,463,000	4,453,000	1,328,000	20,244,000	1,384,000	4,217,000	1,085,000	6,686,000	26,930,000
	증감(명)	393,000	-501,000	-152,000	-260,000	-200,000	118,000	-50,000	-132,000	-392,000
	증감률 (%)	2.8	-10.1	-10.3	-1.3	-12.6	2.9	-4.4	-1.9	-1.4

주: 증감 및 증감률은 '19년 대비 증감인원 및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1.4. 장애인의 임금근로자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전체 인구 비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22,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681,000원 대비 71.7% 수준이며, 2019년도의 74.6%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종사자 지위별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2,630,000원, 임시근로자 928,000원, 일용근로자 1,29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이 1,478,000원, '5~49인'이 1,689,000원, '50~299인'이 2,163,000원, '300인 이상'이 3,465,000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이후 전체 임금 근로자는 2019년 대비 조사시점

평균 3개월 임금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 4.1.5. 장애인 실업자의 주요 특성

조사시점 기준 현대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실업자는 전체 장애인 실업자의 91.4%로 전체 인구의 실업자 94.4%에 비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0.6%하락한 수치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취업경험을 한 비율은 42.7%로 나타나 2019년에 비해 0.8%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79.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표 4>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추정 수	3개월 평균임금	'19년 임금
임금근로자 종사자 지위	상용근로자	330,662	263.0	267.6
	임시근로자	191,096	92.8	92.7
	일용근로자	70,283	129.3	136.5
임금근로자 사업체 규모	1~4인	98,580	147.8	139.2
	5~49인	305,346	168.9	190.8
	50~299인	132,574	216.3	225.9
	300인 이상	54,112	346.5	325.9
장애인 임금근로자		592,041	192.2	197.1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0,446,000	268.1	264.3

1. 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2.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년 8월 참조, 통계청(2020)자료

<표 5> 장애인 실업자의 주요 특성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실업자			전체 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19년 비율	추정 수	비율
과거 취업경험 있음	50,894	91.4	92.0	1,206,000	94.4
1년 이내 취업 유경험자	21,755	42.7	43.5	953,000	79.0
	29,139	57.3	56.5	253,000	21.0
과거 취업경험 없음	4,760	8.6	8.0	73,000	5.7
전체	55,654	100.0	100.0	1,278,000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 COVID-19가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 4.2.1. 현재 임금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의 변화’에는 무급휴직, 무급휴가, 유급휴직, 유급휴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형태의 변화’에는 유연근무(출퇴근 시간 변경 등), 재택근무(원격근무), 비대면 업무 전환(온라인 업무 등)이, ‘업무 및 임금 변화’에는 업무 변경, 임금 삭감, 업무량 감소, 임금 체불, 전체근로자 지원 축소, 장애인근로자 지원 축소가, ‘일자리 상황 및 고용유지’에는 일자리 휴업, 일자리 매출 또는 고객 감소, 계약기간 연장 실패, 재계약 등 퇴사 권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0년 5월 현재 장애인 임금근로자에게 COVID-19로 인해 직장에서 변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상황을 응답받은 결과, 21.7%로 나타났으며 근로 내용 변화, 근로형태 변화, 근로시간 변화 등을 겪은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는 ‘임금 및 업무 변화’(12.7%), ‘근로시간, 근로일 변화’(12.4%) 등을 경험한 것으로 임금근로자들은 응답하였다. 상용직(18.7%)에 비해 임시(25.5%)과 일용직(25.9%)에서 COVID-19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은 임금 삭감, 업무량 감소, 임금 체불 등 ‘임금 및 업무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일용직의 19.2%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현재 장애인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이 있음	134,717	21.7	18.7	25.5	25.9
1) 근로일, 근로 시간 변화	76,964	12.4	13.1	12.3	9.1
2) 근로 형태 변화	22,373	3.6	4.5	3.2	0.1
3) 업무 및 임금 변화	79,115	12.7	10.5	14.4	19.2
4) 일자리 상황 및 고용유지 변화	44,233	7.1	5.7	8.9	9.4
5) 기타	1,611	0.3	0.4	0.1	0.0
특별히 없음	486,325	78.3	81.3	74.5	74.1
전체(추정 수)	621,042	100.0	100.0	100.0	100.0
			(352,957)	(194,892)	(73,19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2. 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고용안정 정도

COVID-19 이후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정도를 응답받은 결과, ‘전혀 변화 없음’ 58.4%, ‘다소 불안해짐’ 23.5%, ‘매우 불안해짐’ 9.2%,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 8.9%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7%가 고용상태가 COVID-19 이후에 불안해져 있는 상태(회복은 제외)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상태가 불안해진 비율은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표 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고용안정 정도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전혀 변화 없음	362,590	58.4	66.6	51.3	37.3
다소 불안해짐	146,087	23.5	19.9	23.9	40.1
매우 불안해짐	57,095	9.2	7.2	9.8	17.1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과 동일한 수준)	55,270	8.9	6.3	14.9	5.6
전체(추정 수)	621,042	100.0	100.0	100.0	100.0
			(352,957)	(194,892)	(73,193)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3. 현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은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이며, 매출(소득) 감소가 전체의 51.6%로 나타났고 ‘고객 감소’가 28.7%로 응답하였다.

<표 8>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하위항목, 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이 있음	147,317	54.1
1) 매출(소득) 감소	140,491	51.6
2) 고객 감소	78,045	28.7
3) 영업(근로)시간 단축	22,000	8.1
4) 일시휴업	7,063	2.6
5) 직원 감원	5,185	1.9
6) 신규채용 제한	3,350	1.2
7) 근무(영업)방식 변화(온라인 영업 강화 등)	934	0.3
8) 기타	711	0.3
특별히 없었음	125,034	45.9
전체	272,351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4.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을 응답받은 결과, 운영상황에 ‘전혀 변화 없음’ 39.1%, ‘다소 불안해짐’ 28.7%, ‘매우 불안해짐’ 28.6%,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과 동일한 수준)’ 3.7%로 나타나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57.2%가 사업체 운영상황이 COVID-19 이전에 비해 불안해져 있는 상태(회복 제외)라고 응답하였다.

<표 9>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변화 없음	106,490	39.1
다소 불안해짐	78,029	28.7
매우 불안해짐	77,839	28.6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과 동일한 수준)	9,992	3.7
전체	272,351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5. 현재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020년 이후 퇴사자 즉, 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41,168명 중 COVID-19가 퇴사에 미친 영향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거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자의 경우 해당 비율은 66.4%에 이른다. 2020년 이후 퇴사자 중에서 COVID-19에 영향을 받지 않은 비율은 17.5%이다.

<표 10> 2020년 이후 장애인 퇴사자의 COVID-19가 퇴사에  
미친 영향 정도 - 현재 경제활동 상태별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현재 경제활동 상태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전혀 관련 없음)	21,050	51.1	33.6	59.1
일정 정도 영향 받음	6,638	16.1	27.8	10.8
큰 영향을 받음	13,480	32.7	38.6	30.1
전체(추정 수)	41,168	100.0	100.0 (12,881)	100.0 (28,287)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6. 현재 실업자

현재 실업자에게 COVID-19로 인해 취업준비에 가장 큰 영향 미친것을 응답받은 결과, ‘일자리 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채용 계획이 없음’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으로 응답한 비율이 15.3%로 나타났다.

<표 11> COVID-19가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준비에  
미친 가장 큰 영향

(단위: 명, %)

구분	추정 수	비율
일자리 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채용 계획이 없음	36,200	65.0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4,375	7.9
스스로 취창업 일정을 연기함	2,646	4.8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	8,499	15.3
취 창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등이 어려워짐	3,935	7.1
전체	55,654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4.2.7.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일할 의향은 있었으나 구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게 해당 사유가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응답받은 결과, 39.3%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2>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하지 않은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57,367	60.7
일정 정도 영향 받음	20,566	21.8
큰 영향을 받음	16,547	17.5
전체(추정 수)	94,479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일할 의사가 없는 이유가 COVID-19 때문인지를 응답받은 결과, 4.7%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13>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주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1,440,736	95.3
일정 정도 영향 받음	43,583	2.9
큰 영향을 받음	26,840	1.8
전체(추정 수)	1,511,158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전주의 주된 활동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502,314명에게 쉬게 된 것이 COVID-19와 관련이 있는지 응답받은 결과 7.0%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주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경우 COVID-19와의 관련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COVID-19와 관련이 있음	34,918	7.0
COVID-19와 관련이 없음	467,395	93.0
전체	502,314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 V. 결론

본 연구는 COVID-19가 장애인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목표로 탐색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OVID-19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0.3% 하락하였고, 장애인의 임금근로자의 경우 그 수 자체가 1.1% 하락하였으며 임금 역시 평균 197.1만원에서 192.2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실업 역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취업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3%가 낮았으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2.9% 높게 나타났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도 COVID-19 이후에 고용유지의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19.9% 더 증가한 것을 볼 때 실업율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낮아진 것이 고용증대로 늘어났다기 보다는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해고되거나, 급여의 변동, 근무조건의 변화를 직장 내에서 경험하였다(김유선, 2020; 황선웅, 2020; Béland et al., 2020).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및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높아져 직종, 업종과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고용의 형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COVID-19이후 장애인의 고용안정 정도가 나빠졌다. 장애인 노동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나중에 채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에(서정희 외, 2020)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정도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2차 산업과 공익산업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임예직·문영민, 2020). 한편 장애인이 고용안정도에서 많은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된다(이태훈, 2012; 서정희·이지수, 2017; 임예직·문영민, 2020; Jones, 2007).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전 업종에서 매출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COVID-19로 인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또는 휴직을 종용받는 장애인 근로자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남현주, 20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다섯째, COVID-19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이 바라보는 고용은 사회통합과 참여의 핵심적 요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COVID-19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COVID-19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업무 축소나 휴업을 고려하고 있어 인원 선발에 있어 비장애인들도 대량 실직사태에서 구인에 나서다 보니 장애인의 취업률 확대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장애인이 업무라인에서 일반인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환경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할 때 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장애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정규화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노동자의 노동진입을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법적 정비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기업은 편견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회에서는 장애인노동자들의 이동, 활동, 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처럼 장애인 보호조치가 고용안정에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남현주, 2020), 의무고용제도와 같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보호 조치들을 더욱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응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정미정, 2020).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국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20년을 기점으로 COVID-19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특정시점의 문헌자료를 통해 탐색하였다. 차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분석을 하여 일반화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종단적인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직업안정의 불안정성이 그들의 고유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COVID-19로 인해 가중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로는 분리할 수 없어 차후 다른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REFERENCE

김금환·박애경·김윤재(2012). 장애인복지비 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벤처창업연구*, 7(3), 121-131.

김성희·이연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7).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주·고민석(2012). 지적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관련 변인 예판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4(1), 241-261.

김유빈·이지은·김우영·신선옥·정현상·권익성(2019). *제2차(2018)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9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9, 1-17.

남정휘·조성욱(2012).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6(4), 137-156.

남현주(2020). [독일]코로나19 이후 독일 장애인 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정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자료*, 4-9.

박태경(2010). *장애인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직종에 따른 인적자본 요인의 영향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정희·이지수(2017).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사회보험 배제의 수준과 관련요인. *장애와 고용*, 27(1), 83-113.

서정희·오욱찬·이지수(2020).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7, 89-127.

서인환(2020). *코로나19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줄어든 위기*.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00424131035100372>.

유은주(20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미지(2020). [미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과 미국의 장애인 고용 이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자료*, 4-9.

이성순(2011). *결정과정: 집행성과의 연계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 방안*.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승운·백승호·김미경·김윤영(2017a).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이승운·백승호·김윤영(2017b).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서울: 후마니타스.

이인재·이문국·김정원·강병노(2013).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이정서·김현덕(201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235-242.

이태훈(2012). 취업시각장애인의 임금과 정규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연구*, 28, 43-58.

이투데이 오피니언 팀(2021.05.12).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이투데이, Retrieved(2021. 10. 25), from URL.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4946>.

임예적·문영민(2020).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3), 147-176.

정미정(2020). 감염병 재난, 생활공동체로 살아남기. *생활평론*, 49, 96-115.

정원철·박윤정(2012). 정신장애인의 취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고용*, 22(4), 187-209.

최성욱·이제화·이수진·김민정(2007).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7, 141-166.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2020년 8월 고용동향)*. Retrieved(2021.10.25.). from URL.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035&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035&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통계청(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2021년 5월 고용동향)*. Retrieved(2021.10.25.). from URL.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Retrieved(2021.10.06.). from URL.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0).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황선웅(2020).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3), 5-34.

Béland, L. P., Brodeur, A., & Wright, T.(2020). *The short-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Covid-19: Occupation tasks and mental health in Canada*. IZA Discussion Paper No. 13254. Bonn, Germany,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Choi, S. S., Lee, J. H., Lee, S. J., & Kim, M. J.(200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n Korea and metho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cusing on the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the disabled.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7, 141-166.

Cortis, N., & van Toorn, G.(2020). *The disability workforce and COVID-19: initial experiences of the outbreak*.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efourny, J.(2008). Social Enterprise in An Enlarged Europe: Concept and Realities.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202-228.

Defourny, J., & Kim, S. Y.(2011). Emerging Models of Social Enterprise in Eastern Asia: A Cross-country Analysis. *Social Enterprise Journal*, 7(1), 86-111.

EToday Opinion Team(2021.05.12). *Income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since the COVID-19 outbreak*. Etoday, Retrieved(2021. 10. 25.) from URL.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4946>.

Hwang, S. U.(2020).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Impact of COVID-19 by Employment Type. *Industrial Labor Study*, 26(3), 5-34.

Jeong, O. C., & Park, Y. J.(2012). A study on employment determinants of mentally disabled people. *Disability and Employment*, 22(4), 187-209.

Jones, M. K.(2007). Does part time employment provide a way of accommodating a disability?. *The Manchester School*, 75(6), 695-716.

Jong, M, J.(2020). Plague disaster, surviving as a living community. *Life Cooperation Review*, 49, 96-115.

Kim, D. T., & Ko, M. S.(2012).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14(1), 241-261.

- Kim, K. H., Park, E. K., & Kim, Y. J.(2012). Analysis of the Spillover Effects of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Capital Expendi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3), 121-131.
- Kim, S. H., Lee, Y. H., Hwang, J. H., Ou, M. E., Lee, M. K., Lee, N. H., Ou, D. U., Kang, D. U., Kwon, S. J., Ou, H. K., Yun, S. Y., & Lee, S. Y.(2017). *Disability Survey Report*. Gyeongg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Y. B., Lee, J. Y., Kim, U. Y., Sin, S. O., Jong, H. S., & Kwon, L. S.(2019). *Economic Activity of Korean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the 21st(2018) Year: Basic Analysis Report of the Korea Labor Panel*.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 Kim, Y. S.(2020). Corona crisis and employment trends in September. *Korea Labor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19, 1-17.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2020). *A survey on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disabled in 2020*. Gyeonggi: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2021).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Requirements*. Retrieved(2021. 10. 06.). from URL.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ertRequirements.do?m_cd=E004)
- Lamberte, M., & Manlagñit, M. C. V.(2009). The Impact of Women Members and Employees on the Severity of Agency Conflicts in Philippine Cooperative Credit Unions.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29(1-2), 183-214.
- Lee, I. J., Lee, M. K., Kim, J. Y., & Kang, B. N.(2013). *A study on ways to create jobs for women through activation of women-friendly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Lee, J. S., & Kim, Y. D.(2013).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disabled.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235-242.
- Lee, M. G.(2020). [USA]Coronavirus (COVID-19) and the employment issue of the disabled in the United States.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Research Data*, 4-9.
- Lee, S. S.(2011). *The improvement plan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linkage between decision process-execution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S. Y., Bak, S. H., & Kim, Y. Y(2017b). *Korean precarious workers*. Seoul: Humanitas.
- Lee, S. Y., Bak, S. H., Kim, M. K., & Kim, Y. Y(2017a). Analysis of instability in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Critical Social Policy*, 54, 487-521.
- Lee, T. H.(2012).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wage and permanent employment decisions of visually impaired in employment. *Blindness Research*, 28, 43-58.
- Lim, Y. J., & Mon, Y. M.(2020). Analysis of the instability of the disabled labor market: Focusing on disabled wage workers. *Social Welfare Research*, 51(3), 147-176.
- Nam, H. J.(2020). [Germany]Status of the German disabled labor market and labor policies after COVID-19.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Research Data*, 4-9.
- Nam, J. H., & Cho, S. U.(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job retention of severely disabled people. *Rehabilitation and Welfare*, 16(4), 137-156.
- National Statistics Korea(202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Press Release (August 2020 Employment Trends)*. Retrieved(2021.10.25.). from URL. [https://kostat.go.kr/portal/korea/eng\\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035&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eng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035&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National Statistics Korea(202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Press Release (Employment Trends in May 2021)*. Retrieved(2021.10.25.). from URL. [https://kostat.go.kr/portal/korea/en\\_nw/1/3/2/index.board](https://kostat.go.kr/portal/korea/en_nw/1/3/2/index.board).
- OECD(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Paris: OECD.
- Park, T. K.(2010).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ocused on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Factors by Occup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 Ryo, E. J.(2014). *A Study o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Severely Disabled: Focusing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Seo, I. H.(2020). *The crisi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due to COVID-19*. Able News, from URL.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00424131035100372>.
- Seo, J. H., & Lee, J. S.(2017). Precarious work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levels of social insurance exclusion and related factors. *Disability and Employment*, 27(1), 83-113.
- Seo, J. H. Oh, U. C., & Lee, J. S.(2020). A review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and employment security for the disabl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Welfare of the Disabled*, 47, 89-127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2021).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Retrieved (2021.10.25). from URL. <https://www.bls.gov/opub/mlr/2021/>
- WHO(2009). *Achieving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Legislation. Guidelines. Geneva

## Exploring Job Changes for Disabled Workers Due to COVID-19

Kang, Young Sook\*

Kim, Byung Chul\*\*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job change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To this end, the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economic activity for the disabled and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literature study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VID-19 had caused a change in the working pattern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degree of employment security for the disabled had deteriorated after COVID-19. Third, non-wage workers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business operation due to COVID-19. Fourth, it had affected the resignation due to COVID-19. Fifth, there were difficulties in finding a job due to COVID-19.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were being greatly restricted due to COVID-19. Accordingly, a proposal for a solution was mad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instability of the domestic disabled people's labor market due to COVID-19 based on data.

*Keywords: COVID-19, disabled Worker, economic activity, job*

---

\* First Author,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arang6774@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nsan University, best744@ansan.ac.kr